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IRON SHARPENS IRON

가제 : 죄를 날카롭게 하는 죄

저자 : Scott Reintgen

출판사: Crown BFYR

발행일: 2017년 9월 12일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수십만 달러 규모로 북미 출판이 체결된 데뷔작

* 피어스 브라운(*Pierce Brown*)의 「*Red Rising*」, 폰다 리(*Fonda Lee*)의 「*Zeroboxer*」를 떠올리게 하는 미스터리와 액션이 결합된 공상과학 소설

평생 죽을 때까지 매달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고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역시나 평생 병원 진료와 상담,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암을 비롯해 불치병으로 불리는 질병을 가장 발전된 의료기술로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채용 조건이 있을까? 스무 살도 안 된 십대 아이들 10명에게 이런 제안이 주어졌다. 회사의 이름은 바벨 커뮤니케이션. 무슨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근근이 살아가던 에멧 앳워터도 이 아이들과 나란히 회의실에 앉아 계약 조건을 듣게 되었다. 방안에 모인 아이들을 죽 둘러보니 아시아, 남미, 중동, 유럽 등 다양한 곳에서 온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엄청난 조건은 무슨 일을 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걸까? 그 답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다.

63년 전, 바벨 커뮤니케이션은 우주탐사를 벌이던 중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냈다. 지구와 꼭 닮은 이 행성에는 ‘에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당시만 해도 지구와 멀리 떨어진 에덴까지 한 번 가는 데 2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 기간은 1년 정도로 크게 단축됐다. 문제는 이미 에덴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 ‘애다마이트’라 불리는 이 외계 종족은 일종의 휴머노이드로, 인간보다 대체로 키가 작고 더 똥뭇막한 몸체에 크고 둥근 눈이 특징이다. 원래 에덴에는 더 많은 종족들이 살았지만 내전이 벌어져 애다마이트만 남았다. 그리고 에덴을 처음 발견한 우주선에서 태어난 인간의 아이, 재클린도 일곱 살 정도에 그곳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애다마이트는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되었고, 천일곱 살 된 애다마이트가 가장 어려 곧 종족 자체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재클린은 이들에게 목숨 걸고 지키는 귀중한 존재로 살고 있다. 바벨 커뮤니케이션이 굳이 십대 청소년들을 채용한 이유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 애다마이트가 있는 땅에 발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바로 에덴에서 바벨이 원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바벨 커뮤니케이션은 에덴만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껏 발견된 광물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대리석 같은 물질, ‘닉시아’를 발견했다. 간단한 조작으로 원하는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신비한 이 광물은 에덴 땅 곳곳에 파묻혀 있었다. 닉시아만 원활히 공급된다면, 회사가 거둬들일 수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다. 에멧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선정된 아이들은 회사가 마련한 우주선에 올라 에덴으로 가서 바벨 측이 애다마이트와의 협상을 통해 미리 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닉시아를 채취하면 된다. 개개인마다 할당된 양이 있고, 그 양만 채우면 평생 땀 흘리며 살 수 있다. 가난에 찌들어 사는 생활이 지긋지긋했던 에멧은 복권이라도 당첨된 기분에 과성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애써 흥분을 가라앉히며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역시 행운은 쉽게 오지 않는 법인지,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1년 동안 에덴을 향해 가는 동안, 우주선 안에서 열 명의 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우주선이 에덴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그 미지의 땅에 발을 디디고 닉시아를 채굴할 자격은 단 여덟 명에게만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이 모르는 행성에서 세상이 모르는 광물을 캐기 위해 우주선에 오른 에멧은 바벨이 예고한 경쟁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우주선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 각자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점수가 매겨지고, 매주 점수와 순위가 공개된다. 각자 절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우주선에 몸을 실은 아이들은 막대한 성공이 보장될 가능성을 거머쥔 이상,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열의를 불태운다. 하지만 에멧은 바벨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고, 이들이 감추고 있는 진짜 계획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다. 우주선의 경쟁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싸움으로 악화되어 간다.

총 3부작으로 완성될 닉시아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헝거 게임』, 『메이즈 러너』를 연상시키는 모험과 수수께끼로 가득한 도전이 읽는 내내 호기심을 자아낸다.

<저자 소개>

스캇 레인트겐(Scott Reintgen)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여러 친척들이 같은 동네에 모여 살면서 열 네 명이나 되는 사촌들과 부대끼며 어릴 때부터 이야기꾼을 자처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면서 부전공으로 글쓰기를 배우고 교직에 몸담기 위해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작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제목 : FLAME'S STORY 외 2편
가제 : 플레임 이야기 외 2편
저자 : Sheridan Winn
출판사: Sheridan Winn
발행일: 2017년
분량 : 각 권 약 30,000 words
장르 : YA 소설



*** 2008년 출간된 1권을 시작으로 10권까지 완성된 『스프라이트 자매(THE SPRITE SISTERS)』 시리즈의 프리퀄 3부작**

*** 독일에서만 45만부 이상 판매된 인기 시리즈 주인공들이 신비한 힘을 처음 깨닫고 맞닥뜨린 온갖 사태와 마법이 다듬어지기 전까지 늘 끊이지 않던 좌충우돌 사고를 그린 흥미진진한 이야기**

불, 물, 땅, 공기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각자 하나씩 가진 네 자매 플레임, 마리나, 애쉬, 아리엘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 시리즈 『스프라이트 자매』는 2008년 첫 번째 이야기가 출간된 후 지금까지 7세부터 12세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려 왔다. 막내 아리엘이 아홉 살 생일을 맞아 ‘공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마침내 스프라이트 자매 네 사람의 마법이 완성되는 것으로 시작된 10부작 시리즈에서 미처 다루지 않은 이야기가 3부작 프리퀄 시리즈로 완성됐다. 제일 큰 언니인 플레임과 둘째 마리나, 셋째 애쉬가 아홉 살 생일에 아리엘처럼 처음으로 신비한 마법을 깨닫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불, 물,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이들 세 사람에게 어떻게 처음 찾아왔는지 들려준다. 10부작 시리즈가 열세 살, 열두 살, 열 살, 아홉 살 소녀들로 구성된 네 자매의 힘이 하나로 결합될 때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마법과 그 능력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3부작 프리퀄은 스프라이트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마법사의 능력이 어린 소녀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

1권. 플레임 이야기(FLAME'S STORY)

플레임은 아홉 살 생일날 손가락이 이상하게 간질간질하고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는다. 여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지 자꾸만 따끔거리 플레임은 신경이 온통 손가락에만 집중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 이유는 곧 할머니를 통해 밝혀진다.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마법 능력이 시작된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불을 다루는 마법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플레임은 놀라기도 하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무엇보다 특별한 능력이 시작된 사실을 엄마아빠에게도, 세 동생들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손가락은 새로 얻은 능력을 쓰고 싶어서 수시로 따끔대고 플레임은 상황에 맞게 힘을 잘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불은 위험하고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 아무리 연습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혼자 숨어서 불을 쓰는 마법을 연습하던 플레임은 평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동생들이나 부모님께 다 털어놓고 의논하던 성격이라 유난히 더 외롭고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서글퍼진다. 그런데 불을 다루는 능력에는 예지력도 포함되어 있었고, 플레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스프라이트 타워가 활활 불타는 장면을 보고 만다. 플레임은 집을 다 무너뜨릴 만큼 거세게 이는 불길을 잡으려면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직 불의 마법을 연습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플레임은 소중한 집을 지킬 수 있을까?

2권. 마리나 이야기(MARINA'S STORY)

플레임이 불의 마법을 쓰기 시작한지 13개월이 흐르고 마리나의 아홉 번째 생일이 찾아왔다. 마리나에게는 물을 다스리는 힘이 부여되고, 플레임은 혼자 1년이 넘게 비밀을 감추느라 애써온 탓에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하지만 마리나 역시 물의 마법에 마구 휘둘린다. 힘 조절이 되지 않아 거대한 파도가 생겨나기 일쑤고, 작은 마리나의 몸은 자신의 능력에 휘청대며 늘 어딘가로 나가떨어져버린다. 그리고 플레임처럼, 마리나도 이 낯선 능력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힘들어한다. 서툰 마법 실력을 다잡느라 정신이 없던 어느 날, 스프라이트 타워에 독수리 눈을 가진 손님이 찾아오고 우연히 마리나가 물의 마법을 쓰는 장면을 보고 만다. 이 알 수 없는 손님은 마리나에게 비밀을 폭로해버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한다.

3권. 애쉬 이야기(ASH'S STORY)

마리나가 마법의 능력을 얻고 2년 정도가 흐른 뒤 셋째 애쉬의 아홉 살 생일날이 다가왔다. 애쉬에게는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주어지고, 이제 열두 살, 열한 살이 된 플레임과 마리나는 비밀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하지만 애쉬는 정반대였다. 마법 때문에 생활이 온통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는 느낌에 잔뜩 화가 난 것이다. 두 언니가 나서서 동생이 아직 서툰 마법의 힘으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자칫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게다가 애쉬는 어릴 때부터 유독 아빠에게 딱 붙어서 속내를 다 털어놓던 아이라, 어쩌면 자매의 마법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말할지도 모른다. 애쉬는 갑자기 찾아온 마법과 언니들의 걱정 때문에 점점 더 괴로워한다. 과연 애쉬는 비밀을 지키고 주어진 능력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셰리단 윈(Sheridan Winn)은 노퍽 지역에서 네 자매 중 첫째로 태어나 동생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자랐다. 현재 노리치에 살면서 스프라이트 시리즈를 쓰고 있다.